

부흥강국을 알망겨오는 공화국의 대중운동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솜씨 있게 대해 말씀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선봉인 총지휘관인 김정은원수님께서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솜씨 있게 대해 말씀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선봉인 총지휘관인 김정은원수님께서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솜씨 있게 대해 말씀하시면서...

조와 건설이 힘차게 진행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영도밑에 새 조국건설을 위한 건축사상총동원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현아 중앙건설업운동과 문맹퇴치운동, 애국민항운동, 근시기금헌납운동의 물결이 온 나라에 라 번져나갔다. 가릴것없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총참모관들이 전선에서 《나의 고지》운동과 《민정》호무기경취운동을 벌이고 후방에서는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탄약과 물자를 보장해주기 위한 전적생산운동과 애국적 절약운동, 전선연호미헌납운동 등이 벌어졌다. 그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고 미제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며 청소년 공화국의 위대한 전승승화가 창조되고 있다.

의강국건설의 주로를 따라 힘차게 달릴수 있었을것 역시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져진 결과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나날이 땅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영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사리동계경쟁호쟁취운동,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과 같은 여러가지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그 힘찬 물결속에 애국을 경탄시키는 내비락, 대거적이 날에날마다 창조되었다. 공화국에서 대중운동은 생산과 건설에서 양양을 일으켜 사회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주고있을뿐 아니라 전체인민을 참다운 인간들로 만들고 온 나라를 덕과 정의 넘치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드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나, 어느 시기나 꽃피고 노이 발휘되고있다. 온 나라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든 이 경이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져진 결과이다. 그것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영도, 위대한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의이다.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 자기신께서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사회주의건설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섰고 밖에서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북진》나발을 불어대며 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갔다. 이런 속에서 다음해 인민경제계획도 수행해야 하였는데 그러자면 계획에 예견한것보다 1년의 강제자가 더 있어야 하였다. 바로 그 강제증산의 방도를 찾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해가 더 저물어가는 그해 12월말 강건설장소(당시)를 찾으신다. 1000여명의 대가정에서 나라안팎의 사정을 그대로 알려주신다. 이시기에 절제된 호소하시었다.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건설 1만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혁명과 건설을 하겠는가. 오직 우리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밖에 믿을수가 없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자. ... 순간 교묘하던 장면에 만

시의 화해성이 폭풍같이 터져왔고 격동된 로동자들이 여기저기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두주먹을 흔들며 어떤 어려운 과업도 기어오해 낼 결의들을 토로하였다. 진심은 마음속 깊은 문도 두드리는 법이고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쇠물처럼 뜨거운 애국의 호소에 산악같이 일떠선 강건설로동계급은 6만1능력의 분과연합기에서 12만의 강제를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강건설에 떠오른 혁명적대교조의 불길, 천리마운동의 불화는 삼시에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져가게 되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19만1능력의 가진 설비로 27만1능력의 건설을 하였다. 그리고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과 더불어 기계가 기계를 낳고 공장이 공장을 낳는 장관이 펼쳐졌다. 공화국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십여일만에 트락터와 화물자동차도 만들어냈고 3000t프레스, 굴삭기, 대형양수기와 볼드젤 등을 제작하여 자립경제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영웅적인 수도건설자들은 7000세대의 주택과 자급로력으로 3~4일이 걸려야 지을수 있던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단 한해사이에 건설하는 기적의 속도, 14분만에

세대의 화해성이 폭풍같이 터져왔고 격동된 로동자들이 여기저기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두주먹을 흔들며 어떤 어려운 과업도 기어오해 낼 결의들을 토로하였다. 진심은 마음속 깊은 문도 두드리는 법이고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쇠물처럼 뜨거운 애국의 호소에 산악같이 일떠선 강건설로동계급은 6만1능력의 분과연합기에서 12만의 강제를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강건설에 떠오른 혁명적대교조의 불길, 천리마운동의 불화는 삼시에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져가게 되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19만1능력의 가진 설비로 27만1능력의 건설을 하였다. 그리고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과 더불어 기계가 기계를 낳고 공장이 공장을 낳는 장관이 펼쳐졌다. 공화국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십여일만에 트락터와 화물자동차도 만들어냈고 3000t프레스, 굴삭기, 대형양수기와 볼드젤 등을 제작하여 자립경제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영웅적인 수도건설자들은 7000세대의 주택과 자급로력으로 3~4일이 걸려야 지을수 있던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단 한해사이에 건설하는 기적의 속도, 14분만에

한세대에 살림집을 조립하는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세인의 경탄을 자아냈다. 어디 그뿐인가. 당시 기계공업의 정수였던 전기기관차를 조선에서 만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는 꾀변을 짓누르며 전기기관차 《붉은기》호의 기적속리도 높이 올렸다.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는 그 정신, 그 두지로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천리마추진화를 창조하고 세계특강계의 해성으로 등장하여 세상을 들었다놓았다.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체강소의 평범한 작업반이 첫 천리마기수, 영웅으로 자라나고 20대초엽의 기계공장 선반공이 1960년대의 첫 로력 영웅으로 성장하였으므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천리마기수, 영웅들이 태어났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격려사건에서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으로 키우고 락오자도 선진분자로 만들어 작은 손으로도 건설의 천리마를 불러오는것이 공화국의 독특한 대중운동사상의 위력이고 전통이라고 하신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으로, 락오자도 선진분자로, 작은 손으로도 건설의 천리마를! 여기에는 대중운동사상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새로

운 정의와 함께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절세위인의 드림 없는 진조가 깃들여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대중운동의 전통은 오늘도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지난은 10여년간 공화국인민이 이룩한 성과는 실로 거대하다. 강국의 존엄과 국위를 만방에 과시하는 주제별기들, 그 어떤 동안에도 끄떡없이 발전과 비약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자립경제, 세인을 놀래우며 창조되는 건설신화들, 날과 달을 이어가며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행들... 그 모든 창조물들과 사면들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 이룩된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취한것은 더욱 아니다. 령도자의 현명한 영도밑에 전체 인민이 일심일체가 되어 장진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여러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차게 벌려 이룩한 자랑찬 성과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부흥변영의 새전기를 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이 세상 가장 결출한 위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공화국인민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보기자 손 지성



강국의 지도자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비범특출한 예지

남에게 놀리우지 않고 존엄과 위용을 펼치는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하려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바라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조선은 령도도 크지 않고 인수도 그리 많지 않은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연합세력과 맞서 가장 힘겨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전변을 령아 펼쳐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를 열어가고있다.

있는 특출한 정지적예지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정리해주시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는 능력과 자질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비범특출한 예지로 시대의 변천과 력사의 흐름을 통찰하시고 공화국인민들이 영원히 승리와 영광의 항로를 나아가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밝혀주시는 희세의 위대한 정지적예지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심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서 확보부동한 의지를 담아 자주성, 사회주의를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것을 공화국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일심일체가 불패의 군력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국이라는 고전적정식화로 강국건설의 방향을 뚜렷이 명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마의 선견지명도 천만민민의 가슴아슴을 찬란한 태양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풀어버리게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한치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존엄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때때로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가장 적중한 대응책으로 언제나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며 기적과 변혁, 승리만을 이룩하시었다. 적대세력들의 악약무도한 반공국고립과 압살책동속에서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몸소 위험천만한 화산건설을 앞장서 헤치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이 땅에 돌발적인 중대보건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조치들과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몸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화목과 번영을 이룩하시이고 전인불발로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기려는 역척불변의 의지를 안고서 친민의 심장마다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더욱 굳건히 심어주신분도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국가핵무력정책의 범발을 일단락 시켜행하도록 하시어 세계정치의 한복판에서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는 존엄높은 자주강국인 공화국의 위상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시고

미국의 패권전략이 총파산을 면할수 없게 한 중대한 력사적업무를 달성하신분 역시 정치의 거장이시며 담대한 배짱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어디 이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성격과 본래를 항구적으로 견지하고 강화하면서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백년, 천년 다해나갈수 있는 새시대 당건설방향을 결정하시었다. 새로운 정지적예지를 비롯하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이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하기에 지금 세계인들은 《김정은령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리마의 예지와 선견지명, 비상한 정치적안목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치의 동란속에서 용의주도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로숙한 정치가 이시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특출한 예지와 출중한 령도력에 대해 격찬하고있다. 천체적인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전횡과 도전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위대한 승리와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와 번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할것이다. 김 광 역

세상에 들도 없는 말

오래 공화국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자주성의 성새, 불패의 사회주의의부르로 위용 떨치며 승리의 한걸음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기존의 정치체제이나 경제학적인 수자로서는 가능할수 없는 공화국의 지력과 무한한 발전잠재력은 동시대에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자력갱생으로 용진해온 공화국은 또 한분위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자력으로 만년을 이어가며 승리와 영광의 새로운 장을 수놓아가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구구하여 주체적력량의 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어 강대한 정의 핵무력,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마련하시고 공화국을 초강대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2022년이 결코 무미미하지 않은 시간이었길 보기도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고 해도,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고 해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열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셨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신적 영상이 뜨겁게 떠오른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소 기업소를 찾으시어 생산공정들을 구제하고 있는것은 화학공업부문에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라고 자 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접령 못할 요새가 없다

본보기자 손 지성

본보기자 손 지성